

【 15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제출연월일 : 2005. 5. 21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광역계획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경기도에서 2020년을 목표로 수립중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우리시 계획변경(안)을 제출하기 위한 의회의견 청취

2. 주요골자

-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안)

가. 계획면적(조정 총량 : 4.96 km²)

- 양주동 : 조정가능지(집단화) 2.19 km²(면적변경 없이 일부구역 제척 및 편입)
- 장흥면 : 조정가능지(집단화) 0.46 km²(변경없음)
- 지역현안사업(행정타운) : 0.45 km²(변경없음)
- 우선해제 면적 : 1.86 km²(변경없음)

나. 변경 사유

- 환경평가 4,5등급지(개발가능지) 비율 상향 조정 (53%→64%)
 - 환경평가 4,5등급 비율 하향시 광역 도시계획 결정 지연
 - 광사리, 군부대(탄약고) 전면부(마전동, 산북동일부) 제척
 - 양주1동사무소 뒤편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임야) 제척
- 유양2통(천성농원)지역 광역 도시계획으로 반영 (4,5등급지)
 - 유양2통 개발에 따른 건의서 제출된 상태로 광역도시계획구역 미편입시 계획적 개발 불가

대 외 주 의
확정시까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보고

양 주 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보고

I. 계획수립의 개요

1. 광역도시계획의 성격
 - 도시계획의 최상위 계획
 - 전략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
2.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배경
 - 도시 광역화 진행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
 - ☞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수립하나 금회 건설교통부장관 참여
3.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범위 :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과의 관계 : 국가가 직접 계획 수립권자로 수립
 - > 과밀억제권역등 3개 권역 지정·운영, 청사진적 계획

II. 현황 및 특성

1. 현 황
 - 위 치 : 경기도, 서울, 인천(11,753.6km², 전 국토의 11.6%)
 - 인 구 : 21,532천인(7,098천 가구, 인구증가율 2.7%)
 - 자연환경 : 대부분 평탄지(74.6%) 이며 표고는 100m 이하
2. 특 성
 - 공간적 위상 : 중국, 러시아등 동북아시아 발전의 중심이 되는 대도시들의 거점지역에 위치
3. 주요 정책과제
 - 국가경쟁력 강화와 남북통일에 대비한 수도권 위상 재정립
 -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 자연환경에 대한 광역적 보전 및 관리체계 구축등

Ⅲ. 계획의 목표와 전략

1. 목 표

- 자연환경보전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도시성장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 공간구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

2. 전 략

- 다핵 공간구조로의 개편과 자족도시권 형성을 위한 체계적 도시 개발
- 광역적 토지이용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 광역생태 녹지축 구축과 여가공간에 대한 접근성 제고등

3. 계획지표 : 2020년 기준

- 인 구 : 23,451천명(하한) ~ 25,200천명(상한)
- 가 구 : 9,545천 가구(1가구당 2.64인)

Ⅳ. 공간구조 구상 전략

1. 목 표

- 서울 의존형 단핵공간구조의 개편과 자족도시권 형성
- 환경보전과 친환경적 도시개발
-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 남북통일과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공간구조 개편등

2. 공간구조 개편 구상

- 수도권 거점도시 육성
- 교통축 중심이 개발축 설정등

3. 다핵화 추진전략

- 거점도시 중심의 다핵화
- 지역별 다핵화 ⇒ 수도권 동북지역

- ☞ 2차 거점도시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군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연계 보완형 자족도시권 형성
- ※ 경기도 수도권성장관리 기본구상안
 - ⇒ 양주시 : 광역생활중심도시, 동두천시 : 지역생활중심도시
- ☞ 동두천시는 경원축 상 북한의 동부 공업지역과 연계한 남북 교류 거점지역으로 물류 및 조립제조업 중심도시로 육성
- ☞ 남양주시를 지역의 생활 및 문화중심도시로 육성

V. 부문별 계획 : 관련부분 발췌

○ 간선도로망(안) 계획노선

☞ 남북축

- i 원산 ~ 대전(연천-의정부-성남-오산) → 경부고속도로
- i 원산 ~ 청주(철원-포천-남양주-광주-용인) → 중부고속도로
- i 철원 ~ 충주(철원-포천-양평-여주) → 중부 내륙고속도로

☞ 동서축

- i 강화 ~ 고성(김포-파주-연천-포천)
- i 인천 ~ 화천(고양-양주-가평) → 고속도로 보완노선

☞ 순환축 : 제2, 제3 외곽순환 도로

○ 간선철도망(안) 계획노선

- i 중부내륙선(의정부-남양주-광주-김천)
- i 기타 방사형 노선 : 경원선등

VI.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1.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기본방향과 조정 유형

가. 기본방향

-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집단취락을 선정 우선해제
- 조정가능지역은 원칙적으로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

나. 조정유형

- 유형 I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집단취락으로 우선해제
- 유형 II는 환경등급 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일단의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 추후 개발계획 수립시 해제
- 유형 III은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 해제
- 유형 IV은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사업등과 시·도지사가 추진하는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으로 우선해제

2. 조정(안) ⇨ 집단화

□ 계획면적

- 조정 총량 : 4.96 km²
 - 양주동 : 조정가능지(집단화) 2.19 km²
 - 장흥면 : 조정가능지(집단화) 0.46 km²
 - 지역현안사업(행정타운) : 0.45 km²
 - 우선해제 면적 : 1.86 km²

VII. 변경 사유

- 환경평가 4,5등급지(개발가능지) 비율 상향 조정 (53%→64%)
 - 환경평가 4,5등급 비율 하향시 광역 도시계획 결정 지난
 - 광사리 군부대(탄약고) 전면부(마전동, 산북동일부) 제척
 - 양주1동사무소 뒤편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임야) 제척
- 유양2통(천성농원)지역 광역 도시계획으로 반영 (4,5등급지)
 - 유양2통 개발에 따른 건의서 제출된 상태로 광역도시계획구역 미편입 시 계획적 개발 불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

양 주 시 의 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

경기도에서 2020년을 목표기준으로 수립 중에 있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서 양주시 부분에 대한 계획 변경안에 대해 양주시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공간 구상 전략에 따르면 수도권 동북지역의 2차 거점도시인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한 연계보완형 자족도시권을 형성하는 하나의 축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경기도의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에서는 동두천시를 지역생활 중심도시로 하고 양주시를 광역생활 중심도시로 설정하여 향후 경기 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양주시에서는 위의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과 연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조정가능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시청을 중심으로 행정업무시설을 집단화하여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며

시청 배후의 시가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고자 지역현안 사업으로 양주동 지역에 행정타운 조성과 문화체육 시설 및 공원과 시민광장 등을 계획하였으나

당초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에서 양주동에 보존가치가 높은 환경1, 2등급지를 과다 지정하였고 또한, 난 개발이 진행된 유양2통을 조정가능지역에서 제척하여 계획한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서 환경 1, 2등급지를 개발이 가능한 환경 4, 5등급지로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조정가능지에서 제척된 유양2통 지역과 천성농원지역을 주민들의 요구대로 조정가능지로 조정함으로써 오랜 양주시민들의 숙원이었던 지역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에서는 변경계획안의 조정내용은 적절하다고 인식합니다.

다만, 우리시 장흥면 일영리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그동안 오랜기간의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수질보전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탄약 화하장 입지에 따른 각종 규제로 자족적 도시기능이 불가능하여 주민의 기본적 생활시설의 설치 제한을 받아온 지역으로

금번 개발제한 구역내 취락지 우선해제지역과 조정가능지를 연계하여 구역을 설정하면서 그 구역의 형상이 기형적으로 설정된 것을

국토이용과 개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정가능 면적을
확대하여 줄 것과 함께
정형화된 형상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5. 23

양 주 시 의 회